

# 화순 운주사 복두칠성 원반석과 산정과불의 고려천문학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민속학 전공  
kig110@aks.ac.kr

I. 머리말

II. 한반도 별자리 거석 조형물, 운주사 칠성 원반석

III. 운주사 와불의 북극성 성격과 미륵불 관점

IV. 맺음말

이 논문은 화순군·전남대학교 박물관 주관 〈운주사의 세계유산적 가치〉(2013. 11. 01, 화순군청)에서 발표한 글이다.

## I. 머리말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와 용강리에 위치한 운주사는 영산강 지류인 대초천의 상류지역 천불산 골짜기에 자리한 사찰이다. 『동국여지승람』(1481)에서 “雲住寺千佛山, 寺之左右山背, 石佛石塔各一千. 又有石室二石佛相背而坐”(권40 佛宇條)라 기록되어 있어, 이곳 주산의 이름이 천불천탑에 근거한 천불산(千佛山)이고, 사찰의 이름이 풍수상 배 형상을 뜻하는 운주사(運舟寺)가 아니라 구름이 머문다는 운주사(雲住寺)로 불렸음을 보여준다. 특히 1차 조사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암키와 명문에서 “雲住寺丸恩天造”가 새겨져 있음이 확인되어 사명(寺名)이 운주사(雲住寺)임이 분명하여졌다.<sup>1)</sup>

구름이 머무는 운주사가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골짜기 곳곳에 만들어진 천불천탑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탑들이 방형석탑, 원형석탑, 원반석탑, 원구형탑, 석주형탑, 모전탑 등으로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이방적 형태를 지녔고, 또 우리가 보통 만나는 근엄한 불보살상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 사람처럼 해학적인 모습을 하였으며, 게다가 여느 불상 수인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합장인을 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무엇보다 천불산 서편 기슭에 자리한 7개의 북두칠성 대형 원반석과 그 산정 넓은 바위면에 거대 석조물로 조각된 와불좌상은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흥미와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도대체 한반도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언제 누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만들었던 것일까? 수많은 궁금증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칠성바위와 산정와불 및 다채로운 천불천탑을 누가 언제 새겼다는 기록 자체가 일체 전하지 않기에 술한 추론과 전설이 동원된다.

고려시대 비보사탑 건립의 비조라 불리는 풍수지리의 원조 도선국사가 이 천불천탑을 만들었다거나, 무역차 중국 절강성 등지에서 영산강으로 들어온 외래인이 조성한 것이라거나, 황석영의 대하소설 『장길산』에

1) 전남대박물관, 『운주사』 I (1984), 110쪽. 이 명문은 1984년 5월 20일, 22일 II 지구 주변 발가에서 수습한 기와편 중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1987년 2차 조사에서는 운주사 지 전역에서 30여 편 출토되었고 주로 조선시대 건물지에 해당하는 〈가〉와 〈다〉지구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 II (1988), 61쪽.

등장하여 유명해진 스토리, 곧 민중혁명을 꿈꾸며 미륵의 도래를 기구하던 일군의 선지자들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전설 등등 여러 갈래 설화가 따라붙는다.<sup>2)</sup> 모두가 일차 사료가 아닌지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신비로운 운주사를 어떻게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스토리이기도 하다.

이런 중에 형태상 성격이 가장 분명한 유물은 본고에서 말하려는 7개의 대형 칠성바위라 할 것이며, 이 일곱 둥근 바위가 하늘의 북두칠성 별자리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운주사의 칠성신앙과 불교의 천문학을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료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처음 만나는 초대형 별자리 조형물이기도 하여, 일종의 한반도 별자리 거석문화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고려의 불교천문학 관점에서 고찰하면 산정의 와불은 그 칠성바위와 밀접한 하나의 천문 상관물로 여겨진다. 필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운주사의 미스터리를 고려시대 천문사상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덧붙여 운주사 계곡의 중심점에 위치한 쌍배불상의 존재도 함께 다룬다.

## II. 한반도 별자리 거석 조형물, 운주사 칠성 원반석

화순 운주사 계곡의 서쪽 산등성이 중간 기슭 비탈진 곳에 인위적으로 바둑돌 모양의 원반형 돌판으로 다듬어놓은 7개의 대형 칠성 원반석이 자리한다(그림1, 그림2). 이 위쪽 산정으로 오르는 곳에는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 채석한 흔적이 10여 군데 남은 채석장 암반이 놓여 있다. 이 중에는 대형 불상을 만들기 위해 떼어간 넓이 560×140cm의 채석 흔적도 보이고, 여기서 불상이나 불탑 또는 칠성석 등을 운반할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6줄의 마멸선 흔적(길이 16~41cm, 넓이 12~17cm)이 짙게 남아 있다.<sup>3)</sup> 이 흔적들은 칠성석의 재료가 이곳 자연 암반을 재료로 삼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쪽 산등성이에 북두칠성 모양대로 놓인 칠성바위는 각 원반 지름이

2) 이태호, 『운주사』(대원사, 1994).

3)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종합학술조사』(1991. 4), 92쪽.



그림1-운주사 칠성원반 두건 부분  
(필자 촬영, 2013. 6. 19)



그림2-운주사 칠성원반 두괴 부분  
(임흥철, 2014. 4. 21)

3-4m가량으로 매우 커서 그 규모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크기로 보아 개인이 작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각기 다른 크기의 원반이 밤하늘 북두칠성의 별뿔기 등급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측천문학 지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작품이다.

이처럼 운주사 칠성석은 우리나라 산하에서는 처음 만나는 대형 천문 거석물인 것이다. 표면을 편편히 다듬고 일정한 두께(30-40cm)로 반듯하게 깎은 솜씨는 보통 공을 들인 것이 아니다. 누가 이토록 정교한 모양대로 북두칠성 원반을 깎아놓았단 말인가. 사실 우리 역사에 전하는 천문유물로 신라 때 만들어진 경주 첨성대 외에는 이렇다 할 천문조형물이 없던 터이다.

필자는 1995년 이래 동아시아와 한국사의 역사천문학을 주제로 삼아 연구한 지 이미 18년이요, 그동안 펴낸 책으로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등 다수가 있다.<sup>4)</sup> 이런 이력으로 말미암아 1999년 3월 초에는

4) 1.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b. 10).  
2.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예문서원, 2007a. 10):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2008. 7. 17).  
3.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윈, 2008b. 8): 2008년 <TV 책을 말한다> - KBS 책문화대상 빛나는 역작 후보 선정(2008. 11. 10)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2009. 7. 16).  
4.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a. 12): 2009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73차 청소년권장도서 선정(2009. 3. 5) / 2010년 한국일보 제50회 한국출판문화대상(백상출판저작상) 수상(2010. 1. 14).  
5.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여행지 역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a. 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2012. 5. 4).  
6. 김일권, 『국역고려사 권14 지2 曆志 역주』(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b. 10):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국역고려사, 2012. 5. 4).  
7. 김일권, 『임원경제지 위선지』 1·2(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소와당, 2011c. 12).

KBS 역사스페셜의 〈천불천탑의 비밀, 운주사〉(1999.4.3. 방영) 프로그램에 자문 요청을 받아 처음 이곳을 방문조사하였고, 2013년 6월 19일에는 이곳이 궁금하여 대학원생들과 함께 재차 조사한 바 있다. 이러던 차에 동년 11월 운주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논하는 자리에 발표를 요청받았다.

이 운주사 칠성석이 가지는 천문학적 의의는 이미 일제시대부터 언급되었고, 성춘경(1980), 박종철(1990), 전남대박물관(1991), 이태호(1994)가 거듭 언급했으며, 필자(2006) 역시 이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sup>5)</sup> 본고는 필자가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2008)에서 다룬 내용을 재론하고 좀 더 보완한 글이다.

### 1. 운주사 칠성 원반석의 관측천문학적 의의

운주사 칠성석의 실측 도면과 실측값이 『운주사종합학술조사』(1991) 보고서에 실려 있다(표1, 그림3).<sup>6)</sup> 편의상 7개의 원반석을 서쪽 원반부터 S1로 붙이고 동쪽 기슭 아래 원반까지 S7로 붙이면, S1에서 S4까지가 북두칠성의 국자머리(斗魁)가 되고, S5-S7이 국자자루(斗杓)가 된다. 실제

표1-운주사 칠성석 실측값(『운주사종합학술조사』, 1991 재수록, 단위: cm)

칠성석	지름	평균 지름	두께	비고
S1	273-280	276.5	33	
S2	292-298	295.0	32-35	
S3	228-234	231.0	33-36	
S4	230-235	232.5	37-38	2줄 채석구멍
S5	385	385.0	45-56	1줄 채석구멍
S6	325-331	328.0	29-35	
S7	331-342	336.5	35	

- 5) 野村孝文, 『全羅南道多塔峰の遺蹟』, 『朝鮮と建築』 19-8(朝鮮建築會, 1940); 關野貞, 『朝鮮の建丑と藝術』(東京: 岩波書店, 1941); 성춘경, 「運舟寺의 천불천탑」, 『月間全每』(1980) 2월호; 박종철, 『무등일보』, 1990년 1월 11일자 7면;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종합학술조사』(1991. 4); 이태호, 『운주사』(1994); 김일권, 「한국종교사 속의 미륵과 칠성신앙: 운주사의 칠성바위와 숙종조 미륵불 사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종교와 역사』, 윤이흥교수정년기념논총(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8; 김일권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2008b에 재수록).
- 6) 『운주사종합학술조사』(1991)에 실린 이태호·황호균, 「운주사 불상조각의 형식적 특징과 편년고찰」의 부록으로 〈석불 제작에 관련된 유적과 칠성석 등 기타 유적〉, 131쪽 참조; 〈도면 1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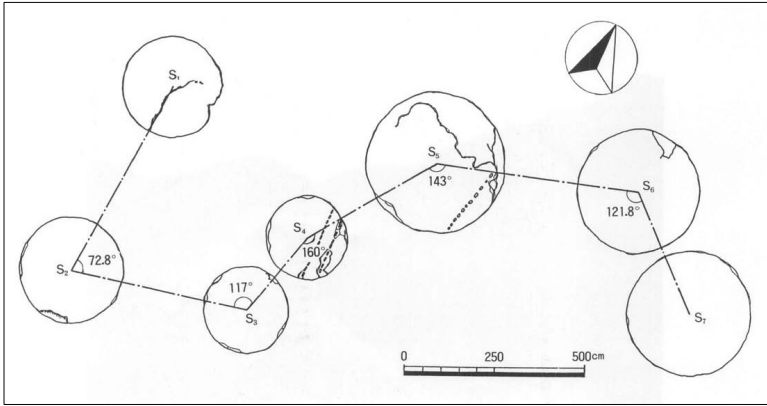


그림3-운주사 칠성석 실측도(『운주사종합학술조사』, 1991, 도면 102)

밤하늘에서는 ㄱ자 형태로 관측되나, 운주사 칠성석은 S자 형태여서 역전된 상태이다. 이는 밤하늘 북두칠성을 지면으로 그대로 내려놓은 직사투영법으로 제작한 것임을 보여준다. 지금도 우리가 북두칠성을 육안 관측상의 ㄱ자 모양으로 하거나, 때로 하늘 밖에서 투영한 모양의 S자 형태로 그리곤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22개의 북두칠성이 ㄱ자형과 S자형을 각기 절반씩 그린 점도 좋은 참고가 된다.<sup>7)</sup>

필자도 금년 6월 각 원반 크기를 측정하였는데(표2), 가장 큰 원반인 S5가 완전히 둥근 지름 385cm로 정원 형태임이 확인된다. 다른 원반들은 5-10cm가량 편폭의 타원형으로 측정되나 육안상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 둥근 원반형이다.

표2-운주사 칠성석의 크기와 밝기 대조(김일권, 2006)

칠성석	공식 명칭	이칭	지름	두께	크기 순서	서양 학명	겉보기 등급	밝기 순서
S1	天樞星	貪狼星	275	40	5	$\alpha$ Dubhe	1.79	2
S2	天璇星	巨門星	294	33	4	$\beta$ Merak	2.37	5
S3	天璣星	祿存星	230	38	7	$\gamma$ Phecda	2.44	6
S4	天權星	文曲星	234	35	6	$\delta$ Megrez	3.31	7
S5	玉衡星	廉貞星	385	43	1	$\epsilon$ Alioth	1.77	1
S6	開陽星	武曲星	327	35	3	$\zeta$ Mizar	2.27	4
S7	搖光星	破軍星	336	35	2	$\eta$ Alkaid	1.86	3

7)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200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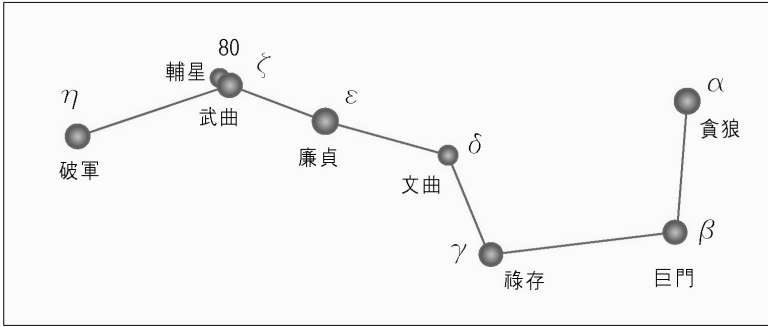


그림4-북두칠성의 각 성 명칭(김일권, 2008)

특이하게 일곱 원반의 지름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관찰된 처음부터 북두칠성의 별 밝기 등급과 비례하여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실제 길보기 등급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두칠성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별자리여서 각 별마다 고유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고대 중국의 「천문지」에서는 1번 별부터 차례로 천추성·천선성·천기성·천권성·옥형성·개양성·요광성이라 불렀고, 다른 별칭으로 1번부터 탐랑성·거문성·녹존성·문곡성·염정성·무곡성·파군성이라 불렀다. 전자는 『진서』 「천문지」에서 북두칠성의 공식 명칭으로 수록된 이래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법이 되었으며, 후자는 양한 교체 시기 참위학의 일종인 『역두중(易斗中)』에 연원을 두는 명칭 계통으로, 후대에 주로 불교와 도교 천문서가 따르고 있는 이름이다. 이 『역두중』의 명칭법은 당현종 시기 서역 승려이자 천문학자인 구담실달(瞿曇悉達)이 태사감(太史監)이 되어 인도 역법의 관점을 반영한 『구집력(九執曆)』(718년)을 편찬하였고, 또 당시까지 전승되던 중국의 고대 천문 점성 관련 자료를 총 집대성한 『개원점경(開元占經)』을 펴내었는데, 바로 이 『개원점경』의 「석씨중관(石氏中官)」조에 수록되어 전한다.<sup>8)</sup> 이 후자의 탐랑 계통이 불교천문학에서 거의 선호하는 명칭법이어서 본고는 이를 기초로 삼는다(그림4).

다음으로 칠성원반석의 지름 크기를 순서대로 놓으면, S5(385cm)-S7(336cm)-S6(327cm)-S2(294cm)-S1(275cm)-S4(234cm)-S3(230cm)

8)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2007b), 〈도불의 칠성신앙과 그 습합현상〉에서 북두칠성의 명칭법과 각 유래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의 순서가 된다. 이에 해당하는 현대 겉보기 등급은 각각 S5 1.77등성, S7 1.86등성, S6 2.27등성, S2 2.37등성으로 점점 어두워져 비례를 이룬다. 이 정도로 일치되는 밝기 비례가 칠성석에서 읽혀진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가장 작은 크기의 S4, S3이 가장 어두운 3.31과 2.44등성에 대비되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5번째 크기로 제작된 S1이 실제로는 1.79등성으로 두 번째 밝은 별(탐랑성)인 점과 크게 차이 난다. 곧, 전체적으로 볼 때 S1 원반이 실제 밝기보다 훨씬 축소되어 작게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대략적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가장 밝은 별인 제5 염정성(옥형성)이 S5 원반에 대응되고, 바로 옆의 제4 문곡성(천권성)이 가장 어두운 별인데 그에 대응되게 S4 원반이 가장 작게 제작되었다. 이때 S3(녹존성)이 228-234cm, S4(문곡성)가 230-235cm여서 측정 위치에 따라 S4가 가장 작은 원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제작된 두께가 S4(35cm)보다 S3(38cm)이 더 두꺼운 점이 감안된다.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는 일환으로 각 칠성석 원반의 체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원반은 측정 위치에 따라 두께가 29-56cm로 큰 편차를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기의 부피를 계산하면 표3과 같다. 이 분석은 칠성석 제작자가 별의 밝기 등급을 체적 문제로 반영하려 하였는가 하는 점을 조사해본 것이다(표3).<sup>9)</sup>

표3-운주사 칠성석의 크기 및 부피와 밝기 대조(김일권, 2013)

칠성석	공식 명칭	이칭	지름 (cm)	두께 (cm)	크기 순서	넓이 (m <sup>2</sup> )	체적 (m <sup>3</sup> )	체적 순서	서양 학명	겉보기 등급	밝기 순서
S1	天樞星	貪狼星	275	40	5	23.75	9.5	4	$\alpha$ Dubhe	1.79	2
S2	天璇星	巨門星	294	33	4	27.14	9.0	5	$\beta$ Merak	2.37	5
S3	天璣星	祿存星	230	38	7	16.61	6.3	6	$\gamma$ Phecda	2.44	6
S4	天權星	文曲星	234	35	6	17.19	6.0	7	$\delta$ Megrez	3.31	7
S5	玉衡星	廉貞星	385	43	1	46.54	20.0	1	$\epsilon$ Alioth	1.77	1
S6	開陽星	武曲星	327	35	3	33.58	11.8	3	$\zeta$ Mizar	2.27	4
S7	搖光星	破軍星	336	35	2	35.45	12.4	2	$\eta$ Alkaid	1.86	3

9) 두께는 필자가 2013년 6월 19일 조사한 값에 의거하였고, 추후 정밀한 평균치를 측정하여 공식적 견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본고에는 측정값이 없어 반영 못 하고 있는데 각 원반석 사이의 거리값도 조사하여 실제 복두칠성 거리와 대조할 필요도 있다.



각 원반의 체적을 조사한 결과, 순서에 변동을 보인다. 가장 큰 부피를 보이는 것은 역시 S5 원반(염정성)이고, 다음으로 S7 원반(파군성)이며, 그 다음이 S6 원반(무곡성)으로, 지름 크기 순서와 동일하다. 반면에 4, 5위가 바뀌어 S1 원반(탐랑성) - S2 원반(거문성) 순서이고, 다시 6, 7위도 바뀌어 S3 원반(녹존성) - S4 원반(문곡성)의 순서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실제 밝기와 대조할 때, S1 탐랑성 원반만 축소되어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6개 원반은 모두 실제 별 등급과 일치하는 비례를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운주사 칠성석 제작자가 실제 북두칠성의 별밝기를 관찰하고 여기에 비례하는 칠성 원반을 제작하였다고 이를 수 있는 실로 놀라운 결과를 얻는다. 가장 밝은 별인 염정성(S5) 원반을 가장 크게 제작하였고, 파군성(S7) 다음 크기로 무곡성(S6) 원반을 만들었으며, 가장 어두운 문곡성(S4)은 가장 작게, 그 다음 어두운 녹존성(S3)은 그 다음 크기로 제작하였던 것이다. 아직 정밀 조사를 통해 표준 측정치를 갖고 계산할 필요가 있지만, 칠성석 제작자가 별의 밝기를 충분히 인지하고서 크기와 부피에 반영하여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천체 관찰 수준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가장 밝은 염정성 원반(S5 385cm)과 가장 어두운 문곡성 원반(S4 234cm) 사이의 지름 편차가 무려 150cm에 달하고, 각 원반 사이 편차가 각기 49cm, 9cm, 33cm, 19cm, 41cm, 4cm 사이로 들쭉날쭉한 것 역시 칠성석 제작자가 북두칠성 7개 별의 겉보기 등급에 차이가 있음을 확연하게 인식하고 나름의 기준으로 측정하여 각 칠성석 제작에 반영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두칠성의 별밝기를 반영한 유물자료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처음 확인된다. 고구려 덕흥리고분벽화(408년)는 북쪽 천정석에 북두칠성을 그렸고, 한국사 최초로 북두 제8의 별인 보성(輔星, Alcor, 80 UMa)을 그린 자료로 주목되었다.<sup>10)</sup> 현대천문학에서 쌍성으로 알려진 이 북두 제8성은 시력이 2.0 이상인 사람에게는 육안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동서 고대로부터 알려진 별이다. 또한 북두칠성 일곱 별의 크기를

10) 김일권,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천문관과 천문학: 덕흥리고분(408)의 별자리 동정과 천문학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한국고대사학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9). 이상의 내용은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2008a)에도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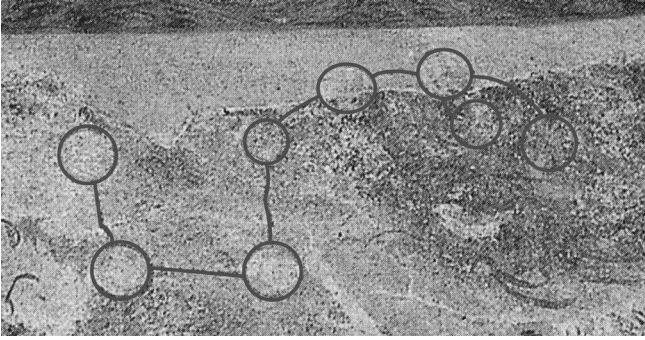


그림5-덕흥리고분 북벽 천정의 복두칠성과 보성(김일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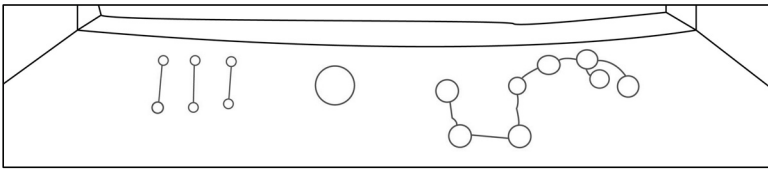


그림6-덕흥리 앞 칸 북벽 천정 별자리(김일권, 2004)  
(중앙의 큰 별이 수성, 좌측 삼태육성, 우측 복두칠성과 보성)

일하지 않게 그린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겉보기 등급을 반영한 관측학적 자료임을 알 수 있다(그림5, 그림6). 특히 복두칠성의 제4 문곡성(3.31등급)이 가장 어두운 별인데, 이를 따라 덕흥리의 제4성도 가장 작게 그렸으며, 가장 밝은 제5 염정성(1.77등급)에 해당하는 덕흥리 제5성도 매우 크게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별의 밝기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는 것은 5세기 초반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의 관측천문학 수준을 잘 보여주는 면모임에는 틀림없다.

고구려 덕흥리 별자리 자료에 이어 한국사에서는 두 번째로 운주사 칠성석이 별의 밝기 등급을 반영한 자료를, 그것도 그림이 아니라 별자리 거석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료 가치가 극히 높게 평가되며, 국내 유일의 거석 천문유물로 조망된다. 이 두 사례를 통해 한국 고대 천문학에서 별의 밝기를 반영하는 노력이 전승되어왔음을 읽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덕흥리 복두칠성과 운주사 복두칠성석은 실제 보이는 ㄷ자 형태가 아니라 이를 뒤집은 S자 형태를 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운주사 하늘에 보이는 복두칠성이 그대로 천불산 기슭으로 내려앉도록 의도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늘의 천문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 2. 운주사 칠성석의 제작 시기와 지극성(指極星) 구도 문제

그렇다면 이 운주사 칠성석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발굴보고서(1991)의 다음 성과를 빌리면 고려시대 초중기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빠르면 11세기 초반, 늦어도 운주사가 가장 번창하던 12세기에서 13세기 초반에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비에 싸인 운주사 사찰은 일제시대 이미 조사되어 『조선고적도보』(권7, 1920)에 실렸으나, 본격 조사는 전남대 박물관 주관 아래 1984년 1차 조사(5.3-8.15 사이 65일간), 1987년 2차 조사(9.12-11.10, 60일간), 1989년 3차 조사(2.20-3.30, 30일간), 1989년 4차 조사(9.18-11.14, 57일간)를 거쳐 이루어졌고, 1991년에는 이를 종합한 『운주사종합학술조사』 보고서(전남대박물관·화순군, 1991. 4)를 발간하여 운주사의 기초사항을 밝혔다(그림7).

이 조사결과, 운주사는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이나 해무리굽 청자편, 순청자편, 상감청자편, 분청사기편 등의 혼합출토를 통해 고려 초기 11세기 초반에는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았고, 남서 30도 방향으로 건립된 〈사〉지구 건물지를 중심으로 남회랑이 있던 지역까지가 이 시기의 초창 사역(寺域)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네 차례에 걸쳐 중창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차 중창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 무렵으로, 〈가〉와 〈나〉지구 하층건물지가 건립되었고, 사찰 중심축이 남서 30도에서 정남향 구도로 바뀌는 커다란 변혁기로 파악되었다. 2차와 3차 중창은 12세기에서 13세기 초반에 걸친 중흥 시기로, 2차 중창기에 〈가〉지구 하층건물지, 〈나〉지구 상층건물지, 남회랑 및 제2, 3기단이 건립되었고, 3차 중창기에 승방지, 동편 건물지, 〈가〉지구 상층건물지, 〈나〉지구 상층건물지, 〈다〉지구 하층건물지, 남회랑, 법당지 및 제1, 2, 3기단이 완비되어 운주사가 7개 동 건물에 4개 기단이 건립되어 가장 번창을 이룬 중흥기로 파악되었다.<sup>11)</sup>

11) 고려왕실 연대를 대비하여 시기성을 가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11세기 전반: 7대 목종(997-1009), 8대 현종(1009-1031), 9대 덕종(1031-1034) 10대 정종(1034-1046).
- 11세기 후반: 11대 문종(1046-1083), 12대 순종(1083), 13대 선종(1083-1094), 14대 현종(1094-1095), 15대 숙종(1095-1105).



표4-운주사 창건과 중창 개요

구분	시기	대응 왕조	중심 건물지	비고
창건기	11세기 초반	현종 (1009-1031)	〈사〉지구 건물지 중심-남회랑 지역	남서 30도 방 향으로 건축
1차 중창기	11세기 말- 12세기 초반	예종 (1105-1122)	〈가〉와 〈나〉지구 하층건물지 건립	사찰 중심축을 정 남향으로 조정
2차 중창기	12세기	인종 (1122-1146) 의종 (1146-1170)	〈가〉지구 하층건물지, 〈나〉지구 상층 건물지, 남회랑 및 제2, 3기단 건립	
3차 중창기	12세기 후반- 13세기 초반	명종 (1170-1197) 신종 (1197-1204)	승방지, 동편 건물지, 〈가〉지구 상층건 물지, 〈나〉지구 상층건물지, 〈다〉지구 하층건물지, 남회랑, 법당지 및 제1, 2, 3기단 완비	7개 동 건물에 4개 기단 확립
4차 중수기	15세기	弘治 8년 (연산군 원년, 1495)	〈나〉지구 상층건물과 〈다〉지구 하층건 물의 소멸된 위에 법당지 기단과 제1기 단을 중수하여, 법당지와 〈다〉지구 상층 건물 건립	
폐사기	16세기 말		정유재란으로 폐사 추정	이후 중수 흔적 없음

때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폐사된 이후로도 사찰의 안쪽 대조리 지역에 건물을 건축하고 법동을 이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2)</sup>

정리하면, 운주사가 고려시대 11세기 초반 현종조(1009-1031) 즈음에 는 창건되었고, 늦어도 1100년 전후 예종조(1105-1122) 즈음에는 사역(寺域) 중심축이 남서 30도에서 정남북의 자오선 축으로 바뀌는 커다란 변혁의 1차 중창을 이루었으며, 무신정권기에 대응되는 12세기 말 명종조 (1170-1197) 즈음의 3차 중창기에 사찰 규모가 가장 완비되고 변성하였다 가, 정유재란이 일어난 16세기 말을 기점으로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발굴 성과를 참조할 때, 가장 주목되는 시기는 보고서에서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운주사 사역의 중심축이 11세기 초반 창건 시의 남서 30도 축에서 정남향의 남북자오선 축으로 바뀌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의 제1차 중창기이다. 사찰의 중심 건물과 쌍배불감 등 불탑불상의 중심축이 자오선상으로 의도적으로 배치한 시기가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천문학에서 방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역의 중심점 에 해당하는 쌍배불감의 배치가 정남북으로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은

12) 4차 1994년 보고서,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 IV(1994), 1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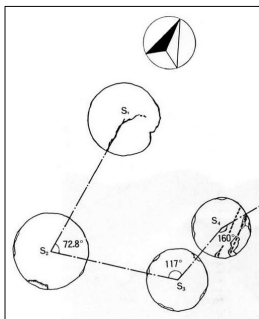


그림8-칠성석 S2-S1의  
지극(指極)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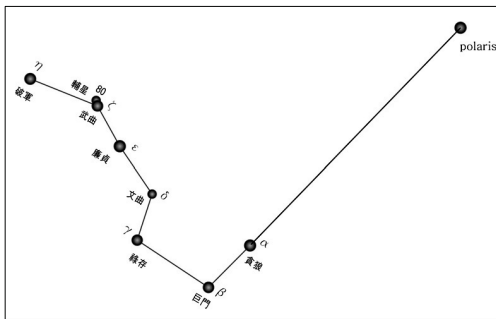


그림9-북두칠성과 지극성 시의도

이 시기에 의도적인 방위 측정을 가하였다는 말이 된다. 공교롭게 운주사 천불 계곡이 남북 방향으로 길다란 골짜기를 이루는 지세여서 하늘의 은하수 계곡으로 유비될 만하다(그림7).

바로 서편의 천불산 기슭 칠성석의 배치 방위를 살펴보면, S2 거문성 원반에서 S1 탐랑성 원반으로 잇는 선이 거의 정북방을 향하고 있다(그림8). 주지하다시피 이 거문성( $\beta$ UMa)과 탐랑성( $\alpha$ UMa)은 이 두 별 사이의 거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5배로 연장한 지점에 북극성이 위치하므로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찾아가는 길잡이 별자리, 곧 지극성(指極星) 별자리로 일컬어진다(그림9). 이 말은 거문성과 탐랑성을 이은 연장선이 북극 방위를 향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바로 운주사 칠성석의 원반 S2-S1 연장선이 정북방을 향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극성의 천문관측학 사실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배치임을 알 수 있다(그림7, 그림12). 앞서 각 원반에 별 등급을 고려하여 제작한 사실과 거듭 부합하는 면이기도 하다.

### III. 운주사 와불의 북극성 성격과 미륵불 관점

#### 1. 산정와불의 북극성 성격과 고려 치성광불화

이상에서 운주사 칠성석이 놀라울 정도로 천체관측학에 바탕한 북두칠성 별자리 배치와 크기로 제작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맨 앞의 두 별이 북극을 향하도록 배치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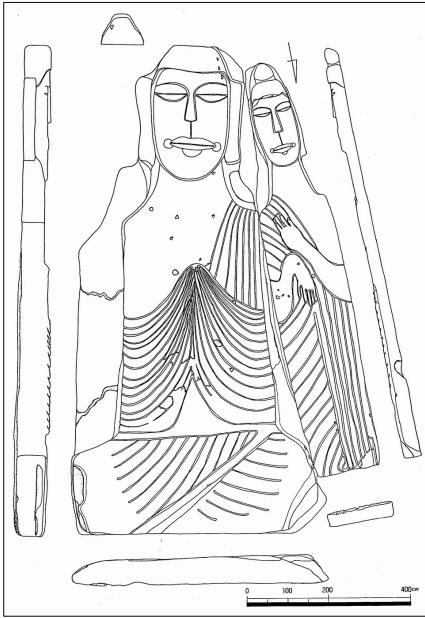


그림10-운주사 와불(『운주사종합조사』 도면 1)



그림11-운주사 산정와불 사진(필자 촬영, 2013. 6. 19)

그렇다면 이 거문성과 탐랑성의 연장선을 따라 산등성이를 올라가노라면 산정상 바윗면에서 운주사의 또 다른 신비인 대형 와불을 만나게 된다(그림10, 그림11). 대형 와불(석불좌상)이 두 손을 가슴 중앙께로

근엄하게 모은 합장인(合掌印)을 하고 좌불 형태를 하였고, 그 왼쪽에는 서 있는 자세의 협시불(석불입상)이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하고서 함께 누워 있고, 오른쪽 협시불은 이미 떨어진 흔적만 남기고 있다. 삼존불 중 주불인 좌상와불의 크기는 불상 높이 12.73m, 머리 높이 4.0m, 머리 넓이 2.67m, 어깨 넓이 3.4m, 무릎 넓이 6.23m, 불상 두께 0.8m에 달한다. 좌협시불은 불상 높이 10.3m, 머리 높이 2.61m, 머리 넓이 1.15m, 어깨 넓이 1.74m이다. 우협시불이었다가 떨어져 세워졌다는 속칭 시위불(석불입상)이 와불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변형 수인을 하였으며, 불상 높이 4.41m, 머리 높이 1.14m, 머리 넓이 0.68m, 어깨 넓이 0.88m, 불상 두께 0.55m로 측정되었다.<sup>13)</sup>

이 와불의 성격에 대해 여러 추정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명쾌한 해석은 어려운 입장이다. 와불의 옷 주름과 합장인 형태가 다른 운주사 천불상에서 널리 보이고, 무엇보다 와불의 우측에 떨어진 흔적과 시위불이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이 불상을 제작한 이들이 중국에는 와불마저 일으켜 세우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론하게 되었으며, 이에 새로운 부처가 나투기를 염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미륵신앙의 면모가 아닐까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설에 따르면 와불은 미륵불이 된다.

이 해석은 충분히 참조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필자는 앞서의 칠성석과 연관해서 이 와불이 고려시대 불교천문학에서 북극성 아래로 일컫는 치성광불(熾盛光佛)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견해는 이미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2008)에서 밝힌 바이기도 하다.

이 추론의 근거는 첫째, 칠성석의 제2와 제1 원반을 이은 연장선을 따라가다 곧장 만나는 위치에 와불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제2 거문성과 제1 탐랑성을 이은 연장선 방향에 온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 별이 놓인다는 천문관측학 관점에서 접근한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그 연장선을 5배 향한 지점에 북극성이 놓이지만, 운주사 칠성석과 와불은 그 거리 비례를 따지기는 좀 곤란하다. 초대형 석재로 칠성석과 와불을 제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산의 지세와 제작할 바윗면의 적당한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북극성의 주된 상징이 모든 하늘의 구심점이듯이, 이 운주사 계곡의 천불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산정에 와불을 새기는 것이 합당한 상징구현일 것이기

13) 전남대박물관 · 화순군, 『운주사종합학술조사』(1991), 66-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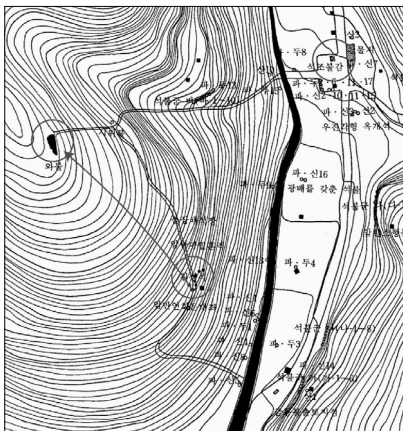


그림12-칠성석과 외벽의 방위관계  
(『운주시종합학술조사』,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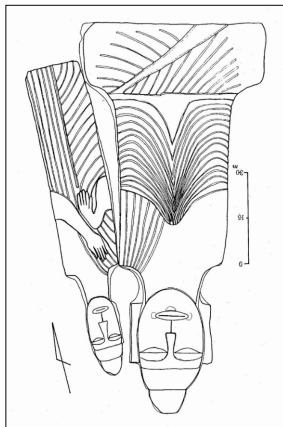


그림13-외벽이 놓인 방위  
(『운주시종합학술조사』, 1991)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산정 중심부에 하필이면 자연암반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마침 초대형 석재여서 와불을 제작하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에 칠성석과 와불의 방위 각도를 따져보면 거의 정북방의 일직선 방향으로 나란히 놓인 배치를 읽을 수 있다(그림12). 이때 두 유물이 평지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비스듬한 산기슭의 곡률을 따라 놓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칠성석의 지극성 방향에 와불이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배치의 와불은 북극성 성격을 지닌 여래가 되는 것이다. 그 반대로 당시 제작자들이 산정와불을 북극성 여래로 놓고서 그 천문구도에 맞게 아래 기슭에 칠성석 원반을 조성하였다는 생각도 가능하지만, 이는 결과론적 해석이며 추론과정에 세우는 가설로는 좀 어렵다.

고려의 불교천문학에서 북극성 신격은 치성광여래라 부른다. 현재 사찰의 칠성각에 주불로 모셔진 부처가 바로 북극성의 치성광불이며, 좌우에 일월광보살과 상하로 칠성여래와 칠원성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치성광불신앙은 한국사에서 10세기 신라 말, 고려 초부터 등장한다. 고려 태조 왕건의 등극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고경(古鏡) 도참 설화가 『고려사』 「태조세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궁에 태봉국의 수도인 동주(東州), 곧 철원의 발삼사(勃曇寺)라는 사찰에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불상이 소상으로 안치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4)</sup>

이 치성광불신앙은 조선으로도 전승되었는데, 조선시대 불교의례를 정리한 『석문의범』의 다음 〈칠성단(七星壇) 예경문(禮敬文)〉에서 잘 보인다.

志心歸命禮 金輪寶界 熾盛光如來佛  
志心歸命禮 左右補處 日光月光 兩大菩薩  
志心歸命禮 北斗大星 七元星君 周天列曜 諸星君衆  
紫微大帝統星君 十二宮中太乙神  
七政齊臨爲聖主 三台共照作賢臣  
故我一心 歸命頂禮<sup>15)</sup>

이 내용에서 보이듯이 고려를 지나 조선에서도 금륜보계를 지닌 치성광여래가 좌우보처불로 일월광보살을 거느리고 북두칠성 칠원성군과 여러 별자리 성주를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주사의 와불을 고려 불교의 북극성 신격인 치성광여래로 보는 필자의 가설을 용인한다면, 운주사 기슭의 칠성석과 산정와불의 관계가 불교 칠성단의 칠원성군과 치성광여래에 일치하여 대비된다.

그런데 고려의 치성광불신앙을 시각적인 불화 그림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 전하고 있는데, 이른바 〈고려 전본(傳本) 치성광여래왕립도〉(14세기)와 〈조선 선조 2년작 치성광불제성강림도(熾盛光佛諸星降臨圖)〉(1569)가 그것이다. 이 두 점은 내용이 온통 불교와 도교의 천문성좌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문불화라 이를 수 있고, 의미상 〈치성광불천문도〉라 일컫게 된다. 이 두 점의 〈치성광불천문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필자가 국내의 최초로 시도하였다. 그 상세한 도면과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필자가 쓴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2008) 중 〈7장 불교의 북극성 신앙 역사와 고려의 치성광불 신앙〉과 〈8장 고려시대 치성광불 천문도와 도불교섭〉에 걸쳐 자세히 논구하였으며, 고려의 능묘천문도에 묘사된 북두칠성 그림 등에 대해서는 〈9장 고려시대 능묘천문도와 벽화의 문화〉로 종합한 바 있다. 여기에 공민왕릉 속의 북두칠성 그림과 각종 고려 석판천문도에 보이는 북두칠성 등의 천문도를 수록하여 분석하였다.

고려 천문을 잘 보여주는 몇 개 그림을 예시로 제시한다(그림14-그림17).

14) 김일권, 「고려 熾盛光佛畫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적 천문사상 연구 - 고려 전본 「熾盛光如來往臨圖」(14C)와 선조 2년작 「熾盛光佛諸星降臨圖」(1569)를 중심으로」, 『천태불교학연구』 4집(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3, 6).

15) 安震湖 篇, 『釋門儀範』(法輪寺, 1931) 〈七星壇〉,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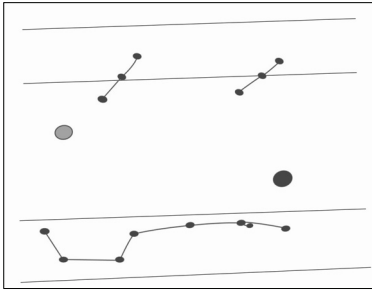


그림14-고려 공민왕의 현릉 천정석 천문도  
(김일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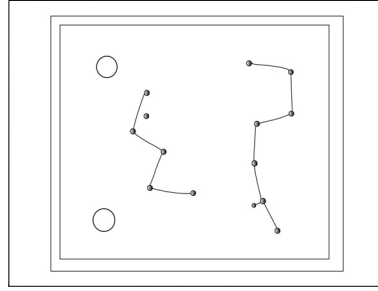


그림15-고려 석관천문도의 일월 및 북두칠성과 선후오성 별자리(김일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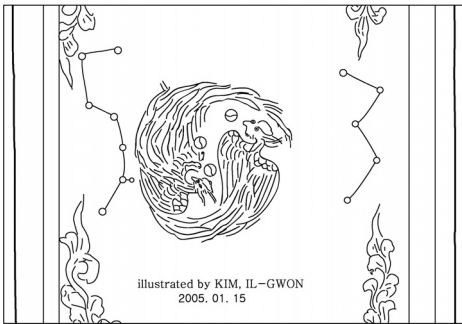


그림16-고려 석관천문도의 북극3성 별자리와 북두칠성 및 선후5성도(김일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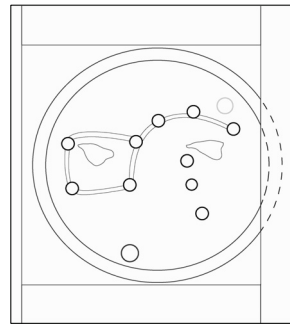


그림17-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 묘의 천정 북두칠성과 북극3성 별자리(김일권, 2008)

이들 고려의 능묘천문도를 통해 고려시대에 북두칠성에 관한 많은 관심과 문화 현상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도면은 단연히 <고려 전본 치성광여래왕립도>(14세기)이다(그림18).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고려 말 14세기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자료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치성광불천문도>는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불교천문학을 반영한 자료이며, 화면의 중심부에 수레를 타고 하강한 인물이 바로 치성광여래이고, 그 자신이 북극성임을 모든 별자리를 신속으로 거느리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구도로 묘사하였고, 왼손에 지물로 든 둥근 수레바퀴 모양의 금륜(金輪)은 치성광여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금륜을 지물로 삼은 북극성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불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자리하였으며, 그 앞쪽으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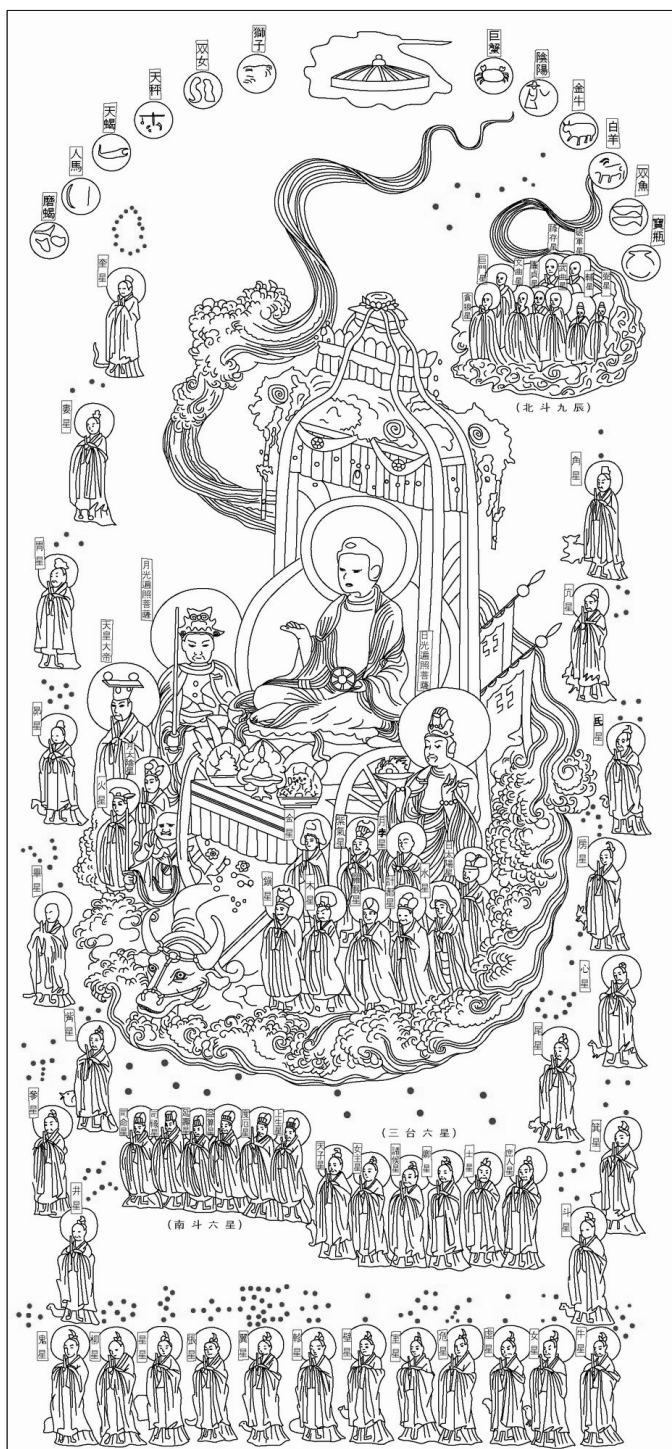


그림18- 고려 치성광여래왕립도(김일권, 2008)

및 나후성, 계도성의 구요(九曜) 천체 성중(星衆)이 포진하고 있다. 구요는 일월과 오행성의 칠요(七曜)에다 불교경전을 통해 인도천문학에서 도입된 나후성과 계도성을 합친한 것으로 9개의 움직이는 천체를 이른다. 치성광불 위편 오른쪽에 북두칠성 보살이 자리하고 있어 칠성도 치성광불의 주요 성중임을 보인다. 이 북두칠성과 대칭되는 남두육성(南斗六星) 별자리가 구요성 중 아래에 나열되었고, 그 오른쪽편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삼태육성(三台六星) 별자리가 포진하였다. 외곽으로 동양의 표준 별자리인 이십팔수(二十八宿) 별자리 성중이 에워싸고, 맨 위로 고려에 처음 도입된 황도십이궁(黃道十二宮) 성중이 활 모양으로 별려 있다.

이런 천문불화를 통해 고려시대 사람들이 인식하였던 천문사상의 면모를 여실히 읽을 수 있는데, 『고려사』의 12세기 천문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려사』 「의종세가」를 보면, 의종 6년(1152) 6월 계미일에 왕이 묘통사(妙通寺)로 행차하여 마리지천(摩利支天) 도량을 배풀었고, 이날 수창궁(壽昌宮)으로 돌아와서는 명인전(明仁殿)에서 칠십이성신(七十二星神)에게 초제(醮祭)하였으며, 또한 천황대제(天皇大帝)와 태일신(太一神) 및 십육신(十六神)에 초제하여 질병(疾疫)을 기양(祈禳)하였다<sup>16)</sup>고 한다.

이때 의종이 초제를 지냈다는 72성신은 고려왕실을 수호하는 천문 별자리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체계일 것인데, 바로 치성광불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통해 재구성이 가능하다. 치성광불화에서 북극성(1), 일월(2), 오성(5), 사요<sup>17)</sup>(4), 북두칠성(7), 남두육성(6), 삼태육성(6), 노인성

16) 『고려사』 「세가」 17권. “毅宗 6年 6月 癸未 幸妙通寺 設摩利支天道場。是日還壽昌宮。醮七十二星於明仁殿。又醮天皇大帝太一及十六神以禳疾疫。”

17) 사요(四曜)는 인도천문학에 들어온 나후성과 계도성 및 자기성과 월패성의 네 천체를 이르며, 이들은 모두 실제 천체는 아니고 일월식에 관계하는 가상적 천체들이다. 실제 관측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암성(四暗星)이라고도 한다. 이 중 앞의 두 천체를 칠요와 합하여 구요(九曜)라 부르고, 네 천체를 칠요와 합하여서는 역시 고려시대 초제에 빈번히 등장하는 십일요(十一曜)가 된다. 이들 사요, 구요, 십일요를 통틀어 대표할 때는 흔히 구요로 지칭하며, 바로 고려 왕건의 태조 시기부터 건립되어 고려 말까지 지속된 구요당(九曜堂)의 핵심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필자는 현재 사찰에 보이는 칠성각(七星閣)이 실상은 민족 고래로부터 전해진 제도가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구요를 중심으로 삼는 구요당 신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조선조 숭유억불의 정책 아래 쇠퇴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앙 형태로 양란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 보았다. 이에 칠성각이 불교 사찰의 주요 전각이 된 것은 양란 이후의 새로운 문화현상이고, 그 이전 고려는 구요당이 주요 전당이 되었던 것이다. 김일권, 『우리

(1), 십이지궁(12), 이십팔수(28)를 합하면 바로 72성신 구성과 합치된다  
( $1+2+5+4+7+6+6+1+12+28=72$ ).<sup>18)</sup>

운주사 천문유적이 고려 예종조에서 의종조 무렵 11세기 말에서 12세기의 천문학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면 이 같은 치성광불화에 등장하는 천문도 구성과 잘 대응되는 성격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구요는 행성이어서 국가 서운관 관원이 아니고서는 관측하기가 어렵고, 매일 하늘을 돌고 1년에 한 바퀴 도는 밤하늘의 천체시계인 북두칠성이야말로 변방의 화순 운주사 담당자들에게는 가장 주목되고 돋보이는 하늘의 전령이자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하늘의 대변자였을 것이며, 운주사 천불산 기슭에 대형 원반석으로 안치하기에 안성맞춤인 소재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천문도 유물과 사료는 운주사 와불과 칠성석의 관계를 북극성과 북두칠성 구도로 해석하는 개연성을 높이는 근거라 하겠다. 물론 확실한 당시의 명문 또는 역사 기록물이 전무한 상태여서 이러한 추론이 갖는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아무런 해석도 할 수 없다면 이는 학문이 아니며, 합당한 추론의 범주를 마련하고 타당한 논지를 제시하는 일에 더욱 신중함과 만전을 기해야 한다.

치성광불화 또는 어떤 천문구도에 따라 운주사 계곡의 천불천탑 배치까지도 천문의 전반적 상징구현물로 해석하는 요청도 있어왔지만, 이 문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타당한 지점의 확보가 우선이다. 하지만 천불천탑의 배치가 정교하지 않고 또 이동된 면도 있어 더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 2. 쌍배불감의 방위성과 와불의 미륵불 측면

다음 셋째, 와불이 향하는 향배 자체가 자오선상으로 놓이되 정면이 정북을 향한다. 와불의 불두가 남쪽으로 누워 있고 가부좌를 튼 좌대가 북쪽에 놓였는데, 이를 일으켜 세운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위는 남쪽이 아니라 정북방을 향하는 구도인 것이다(그림13). 이곳 암반의 지세가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남저북고의 층차를 보여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2008b) 및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2007b) 참조.

18) 김일권, 「고려 熾盛光佛畫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적 천문사상 연구」(2003) 및 「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불교연구』 18집, 2002) 참조.



그림19-운주사 쌍배불감의 남감좌불  
(『운주시종합학술조사』, 1991)



그림20-운주사 쌍배불감의 남감좌불 사진  
(필자 촬영, 2013. 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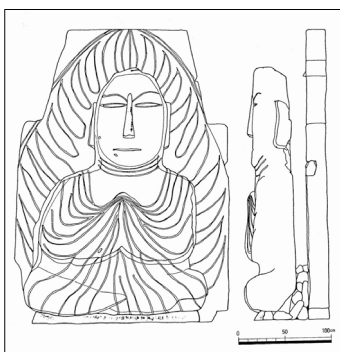


그림21-운주사 쌍배불감의 북감좌불  
(『운주시종합학술조사』, 1991)



그림22-운주사 쌍배불감의 북감좌불 사진  
(필자 촬영, 2013. 6. 19)

는 현재 와불과는 반대 방향으로 남향하도록 새기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이다. 그림에도 의도적으로 북향하도록 새겼다는 것은 이 와불의 방향성에 북방을 지향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와불의 방위성은 북향이되 남북 자오선을 따르고 있다.

넷째, 와불이 자오선상에서 북향한다는 점으로 착안하면, 운주사 천불 천탑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쌍배불감의 방위성도 함께 연관되어 읽힌다. 원반형 연화탑 남쪽 5m 지점에 팔각지붕 형태의 불감 속에 쌍불을 안치한 쌍배불감은 방위를 재보면 정남북의 자오선으로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절터 입구를 향하는 남쪽 불감 속의 석불좌상은 화염문 광배를 하고 오른손을 배에 대고 왼손을 무릎 위에 얹은 축지인 모습을 하였고 (그림19, 그림20), 북쪽으로 향한 북감 속의 석불좌상은 화염문 광배에 머리에 육계가 없고 통견의를 입었으며, 옷 주름이 가슴 중앙에 모아진



합장인을 취하여 산정와불과 유사한 좌불상 모습을 하였다(그림21, 그림22).

특히 북쪽 감실의 북감좌불이 정북으로 북향하고 있고 합장인을 취하여 산정의 대형 와불과 방위와 형태가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불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약 동질적이고 동일한 불상이라면 와불이 미륵불로 해석되는 점을 참조하여 이 북감불상도 미륵불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감이 미륵불이라면, 남감불상은 일반 석가불상에서 볼 수 있는 선정인과 축지인 수인을 하였고, 육계를 하고 결가부좌가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석가불로 대응하여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운주사 계곡 천불상의 중심 위치에 놓인 쌍배불감은 매우 인상적이고 그 상징성도 매우 커서 조선시대 15세기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미 주목되었는데, 이를 이제 북쪽은 미륵불로, 남쪽은 석가불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향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의 자리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현세를 다스리는 석가불과 의미상으로도 상통하는 것이다. 제왕이 북쪽에 자리하고서 남향한다는 남면술(南面術)은 고대 동아시아 제왕학의 단적인 면모이며, 만인이 성스러운 방위인 북방을 향하도록 하는 기제이다.

반면에 북향하고 있는 미륵불은 남쪽의 석가불과 서로 남북으로 등을 대고 돌아앉아 있다는 점에서 현세를 직접 다스리지 못하고 후일을 기약하는 미래의 부처임을 상징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륵불을 정좌하도록 하면 석가불에 상대해서 북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면, 산정와불이 합장인을 하고 정북방을 향하는 자세로 새겨진 이유도 함께 해명되며, 동시에 북감불상이 역시 합장인을 하고 정북방을 향하는 자세인 것도 또한 산정와불과 동일한 자기현신임을 알 수 있다.

### 3. 미륵불과 석가불의 인세 경쟁 창세설화

한편으로 이렇게 운주사 쌍배불감의 남방 석가불과 북방 미륵불이 각기 현세불과 미래불로 상징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등을 대고 돌아앉은 배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사무가에 널리 구전으로 전해지는 창세무가 속의 석가-미륵의 쟁투구도와 흡사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제시기 현지답사를 통해 무가를 채록한 손진태의 『조선신가유편』<sup>19)</sup>을 살펴본다. 이 책은 손진태가 1923년 함경남도 함흥



지역에서 우연히 김쌍돌이 무녀를 만나서 〈창세가〉를 접한 후, 그 뒤로 평안남도 중화군, 함경남도 홍원, 경상남도 동래지역의 무가를 널리 정리하여 1930년에 도쿄의 향토연구사에서 출판한 자료이다.

〈함흥 창세가〉를 보면, 처음 시작부터 미륵불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창생신화의 전형적 3단 구조인 천지창생과 세계창생 및 인간창생을 읊은 일종의 '미륵 창세론' 내지 '미륵 우주론'이라 이를 수 있다.<sup>20)</sup> 신화학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 문학으로서 이 자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즉,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아니했구나.  
하늘은 복개꼭지처럼 도드라지고,  
땅에는 네 귀퉁이에 구리기둥을 세우고.  
그때는 해도 돌이요, 달도 돌이요.  
달 하나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마련하고,  
해 하나 떼어서 큰별을 마련하고,  
잔별은 백성의 직성별로 마련하고, 큰별은 임금과 대신별로 마련하고.  
.....

옛날 옛 시절에,  
미륵님이 한쪽 손에 은쟁반 들고, 한쪽 손에 금쟁반 들고,  
하늘에 축사하니, 하늘에 별레 떨어져, ... 부부로 마련하여, 세상 사람이 났어라.  
미륵님 세월에는,  
섬들이, 말들이 잡수시고, 인간세상이 태평하고, 그랬는데,  
석가님이 나오셔서, 이 세월을 빼앗고자 마련하여,  
미륵님이 말씀하시길, 아직은 내 세월이지, 네 세월은 못 된다.  
석가님이 말씀하시길, 미륵님의 때는 다 지나갔다, 이제는 내 세월을 만들겠다.  
미륵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내 세상을 빼앗으려거든,  
너와 내가 내기를 하자, 더럽고 축축한 이 석가야.  
그러거든, 동해바다 속에 금병에 금줄 달고, 석가님은 은병에 은줄 달고,  
미륵님이 말씀하시길,  
내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네 세월이 되고,  
네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네 세월 아직 아니라.  
동해바다 속에서 석가 줄이 끊어졌다.

19) 손진태, 『조선신가유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번역, 박이정출판사, 2012).

20) 이 〈창세가〉는 1923년 8월 12일 함흥군 운전면 본궁리 큰무당 김쌍돌이(당년 68세) 구술으로 손진태가 직접 채록한 것이다.

석가님이 배를 내밀었구나, 또 내기 한 번 더 하자.  
성천강을 여름에 얼어붙게 하겠느냐.  
미륵님은 동지제(冬至祭)를 올리고, 석가님은 입춘제(立春祭)를 올리니,  
미륵님은 강이 얼어붙게 하고, 석가님이 젖구나.

석가님이 또 한 번 더 하자,  
너와 내가 한방에 누워, 모란꽃이 모랑모랑 피어서,  
내 무릎에 올라오면 내 세월이요, 네 무릎에 올라오면 네 세월이라.

석가는 도적심사를 먹고 반잠을 자고, 미륵님은 참잠을 잤다.  
미륵님 무릎 위에, 모란꽃이 피어올랐구나,  
석가가 중등사리를 꺾어다가, 제 무릎에 꽃았다.

일어나서, 축축하고 더러운 이 석가야,  
내 무릎에 꽃이 핀 것을 네 무릎에 꺾어 꽃았으니,  
꽃이 피어 열흘이 못 가고, 심어서 십 년이 못 가리라.  
미륵님이 석가의 성화를 너무 받기 싫어,  
석가에게 세월을 주기로 하고,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네 세월이 될라치면,  
가문마다 솟대가 서고, 네 세월이 될라치면,  
가문마다 기생 나고, 가문마다 과부 나고,  
가문마다 무당 나고, 가문마다 역적 나고,  
가문마다 백정 나고, 네 세월이 될라치면, 합죽이 언청이 나고,  
네 세월이 될라치면, 삼천 중에, 천 명의 건달이 나느니라.  
세월이 그러한즉 말세가 된다.……

이상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아직 세상이 생기기 전 혼돈 시절에 미륵님이 홀로 먼저 탄생하여 하늘과 땅을 떼어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은쟁반과 금쟁반으로 부부를 만들고 세상 사람을 탄생시켰다. 이런 인식은 미륵을 이 세계창생과 인간창생의 주역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미륵이 주체가 되는 미륵우주론 내지 미륵창생신화론 구도를 시사한다.

그 미륵님 다스리던 세월에는 인간세상이 태평하였는데 석가님이 나오셔서 이 세월을 빼앗고자 내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미륵과 석가가 몇 차례 내기를 하였으나 매번 미륵이 이긴지라, 마지막에 석가가 다시 한 번 내기를 하자 하여 둘이 서로 한방에 누워 누가 먼저 무릎 위에

모란꽃을 피우는가 내기를 하였다. 그런데 석가님은 도둑심사를 먹어 반잠을 자고 미륵님은 참잠을 자는 동안에, 석가님이 몰래 중등사리를 꺾어 자기 무릎에 꽃아 이겼다고 하니, 축축하고 더러운 이 석가야 내 무릎에 핀 꽃을 네 무릎에 꺾어 꽃았으니 열흘이 못 가고 십 년이 못 가리라. 미륵님은 석가의 성화를 너무 받기 싫어 결국 석가에게 세월을 주기로 하고, 그렇지만 네 세월에는 가문마다 기생나고 과부나고 무당나고 역적나고 백정나고 합죽이, 언청이 나고 삼천 명 중에 천 명이 건달이 나느니 그러한즉 세월이 말세가 되리라 한다.

이와 같이 〈함홍 창세무가〉는 미륵불이 혼돈의 세상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인간세상을 연 창세주로 등장하며, 미륵의 세상은 인간태평의 성세로 묘사된다. 이를 시샘하여 석가불이 미륵에게 내기를 걸었으나 이기지 못하자 꿈을 써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세상이 어지러운 말세가 되고 만다. 이에 장차 미래에는 미륵님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투사된다.

이렇게 이 세상을 놓고 미륵과 석가가 내기를 하는 쟁투가 주요 내용인 이 인세(人世) 차지 경쟁 무가는 전국 곳곳의 무가에 산견되며, 몽골의 창세신화에서도 보이는 것이라 하고, 중국의 고대 도교 설화에서도 유사한 구도로 등장한다.<sup>21)</sup>

언제부터 이런 인세 경쟁 무가가 만들어지고 전승되었는지를 차후 조사하여야 되겠으나, 운주사 쌍배불감의 두 불상이 서로 등을 등진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구도가 읽혀진다 할 것이고, 남쪽을 향해 현세를 다스리는 남감불상은 석가불에, 원초의 방위인 북방을 향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북감불상과 산정와불은 미륵불에 충분히 대응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산정와불은 쌍배불감과 연관하여 미래의 구원불인 미륵불로 읽을 수 있고, 칠성석의 지극성 자리에 있다는 측면에서 불교의 북극성여래인 치성광불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운주사 와불을 북극성의 신격인 치성광불과 구원의 미륵불로 보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해석은 운주사의 와불과 쌍배불감에 대한 시론적 개진이며, 명문과 기록물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의 실증성을 말할 처지는 못 되며,

21) 이 인세 경쟁 설화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요한다.

또 석가 미륵의 쟁투신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시대의 문화 해석으로 적절한지는 재론할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사료적 해석 외에 추론적 타당성에 기대어 그럴듯한 개연성 하나를 덧붙여보는 바람이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화순 운주사에 놓여 있는 칠성바위와 와불이 가지는 역사천문학적 의미와 맥락을 살펴보았다. 하늘의 별자리를 이처럼 거대한 복두칠성 원반석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유일의 별자리 거석문화라 평가할 수가 있으며, 각 칠성석의 크기와 배치가 실제 보이는 겉보기 등급과 거리에 비례하도록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앙 차원만이 아니라 관측천문학 관점이 반영된 우수한 유적이라 이를 수 있다.

운주사의 창건 시기가 고려시대 초중기인 11세기 초반으로 상정되었고, 적어도 12세기 초반 무렵에는 사역 건물이 남북 자오선 방향으로 전면 중창되었다는 점에서 이 칠성석과 와불의 제작 시기도 이 시기 범주를 따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1000년의 세월을 지닌 오래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천문학 수준과 당시 사람들의 천문사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주목할 자료라 평가할 수가 있다.

특히 석가불과 미륵불의 경쟁 구도로 설정된 쌍배불감의 존재와 관련하여 산정의 대형 와불은 바로 미래의 구세주인 미륵불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산기슭에 놓인 복두칠성 원반석이 북극성을 가리키는 북쪽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와불이 바로 북극성 성격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고려의 천문체계를 잘 담고 있는 고려 전본 치성광불화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고려시대에 널리 신앙되었던 치성광불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불교천문학에서 천문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던 이 치성광불의 북극성 신앙 전통이 양란 이후 조선 후기 불교 사찰로 이어져 칠성각 본존불로 거듭나 전승된 것은 그 문화전승의 유구함을 잘 보여주는 흐름이다.

역사 사료로 전하는 기록이나 명문 각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산정과 불을 북극성의 치성광불로 해석하고, 또 사역 중심의 쌍배불감을 석가불

과 미륵불로 해석하는 가설이 비록 추론성의 한계를 지닌다 하더라도,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북극성 와불은 그것이 지닌 독특한 천문적 문화성과 유구한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고려시대 천문학과 천문사상 및 불교이념이 잘 어우러져 복합된 유물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유산적 완전성과 의미성을 잘 담지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전남대박물관, 『운주사』 I. 1984.
- 전남대박물관·화순군, 『운주사』 II. 1988.
- \_\_\_\_\_, 『운주사종합학술조사』. 1991.
- \_\_\_\_\_, 『운주사』 IV. 1994.
- 김일권, 「고려 熾盛光佛畵의 도상 분석과 도불교섭적 천문사상 연구」- 고려 전본 「熾盛光如來往臨圖」(14C)와 선조 2년작 「熾盛光佛諸星降臨圖」(1569)를 중심으로. 『천태불교학연구』 4집,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3. 6.
- \_\_\_\_\_, 「한국종교사 속의 미륵과 칠성신앙: 운주사의 칠성바위와 속종조 미륵불 사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종교와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8.
- \_\_\_\_\_, 『동양천문사상 인간의 역사』. 예문서원, 2007a. 10.
- \_\_\_\_\_,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b. 10.
- \_\_\_\_\_,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2008a. 12.
- \_\_\_\_\_,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원, 2008b. 8.
- 성춘경, 「運舟寺의 천불천답」. 『月間全每』, 1980. 2월호
-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번역, 박이정출판사, 2012.
- 安震湖 篇, 『釋門儀範』.法輪寺, 1931.
- 이태호, 『운주사』. 대원사, 1994.
- 이태호·황호균, 「운주사 불상조각의 형식적 특징과 편년고찰」. 『운주사종합학술 조사』, 1991.
- 關野貞, 『朝鮮の建丑と藝術』. 東京: 岩波書店, 1941.
- 野村孝文, 「全羅南道多塔峰の遺蹟」. 『朝鮮と建築』 19-8, 朝鮮建築會, 1940.

## 국 문 요 약

이 글은 전남 화순군 운주사 경내 산등성이에 놓여 있는 7개의 복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의 초대형 와불에 대한 고려시대 역사천문학 및 불교천문학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하늘의 별자리를 이처럼 거대한 복두칠성 원반석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유일의 별자리 거석문화라 평가되고, 각 칠성석의 크기와 배치가 실제 보이는 길보기 등급과 거리에 비례하도록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앙 차원만이 아니라 관측천문학 관점이 반영된 우수한 유적이다. 운주사의 창건 시기가 고려시대 11세기 초반으로 상정되었고, 적어도 12세기 초반 무렵에는 사역 건물이 남북 자오선 방향으로 전면 중창되었다는 점에서 이 칠성석과 와불의 제작 시기도 이 시기 범주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석가불과 미륵불의 경쟁구도로 설정된 쌍배불감의 존재와 관련하여 산정의 대형 와불은 바로 미래의 구세주인 미륵불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산기슭에 놓인 복두칠성 원반석이 북극성을 가리키는 북쪽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와불이 바로 북극성 성격임을 보이는데, 그것이 고려의 천문체계를 잘 담고 있는 고려 전본 치성광불화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고려시대에 널리 신앙되었던 북극성 치성광불로 대비되었다. 이처럼 운주사 유적은 이미 1,000년의 세월을 지닌 오래된 역사물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천문학 수준과 당시 사람들의 천문사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주목할 자료인 것이다.

역사 사료로 전하는 기록이나 명문 각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산정과 불을 북극성의 치성광불로 해석하고, 또 쌍배불감을 석가불과 미륵불로 해석하는 가설이 비록 추론성의 한계를 지닌다 하더라도, 운주사 복두칠성 원반석과 북극성 와불은 그것이 지닌 독특한 천문적 문화성과 고유한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세계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평가된다.

**투고일** 2014. 3. 18.

**심사일** 2014. 5. 1.

**게재 확정일** 2014. 6. 3.

**주제어(keyword)** 운주사(Unjoo-temple), 북두칠성(Northern dipper), 칠성 원반석(Seven Disc Star Stones), 천문 거석 유물(Korean Astronomical Megalithic Structure), 산정 와불(Mountain Top Lying Buddha), 미륵불과 석가불(Maitreya and Sakya Buddha), 쌍배불감(Twin Back Buddha sculptures), 미륵우주론(Maitreya Cosmology)



### A Study of Historical Astronomy on the Dipper Disc Stones and the Top Lying Buddha at Hwasoon Unjoo-Temple

**Kim, Il-gwon**

There are two interesting relics of seven disc stones represented north dipper constellation and the huge Buddha statue lain at the top of Unjoo-temple mountain in Hwasoon-gun, Jeollanam-do, South Korea.

Above of all, each size of seven disc stones is mostly different from 2 to 4 meters in diameter and is build according to the brightness of the dipper star by the measure. This fact means the dipper stones of Unjoo-sa were made by magnitude of stars from the beginning of foundation. The excavation data of the museum of Jeonnam University show the early part of Unjoo-sa buildings were build around the first half of 12 centuries because the angle of early buildings was adjusted to the meridian of north and south. This amazing phenomenon is worthy of notice for a kind of huge astronomical stone sculpture. I would like to put emphasis on a Korean astronomical megalithic structure confirmed at first i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the big Buddha statue are lain at the top of Unjoo-temple mountain. By my measure of disposition between the dipper stones and the top Buddha statue, it is similar to relation of the polaris and northern dipper, because the lying statue lay as north direction to seven stones. The composition such as that could be confirmed at a Koryo dynasty Buddhist star chart called Chi-sung-gwang Buddhist Painting containing many Buddhist constellation images.

I also argued that the central twin back Buddha of hollow sculptures sitting back to back with each other could be explained to correspond to the Sakya Buddha and Maitreya Buddha. As above, in this paper I studied about astronomical approach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mystic dipper stones and top lying Buddha at Unjoo-temple in Korea.